



사랑 · 어울림 · 꿈

#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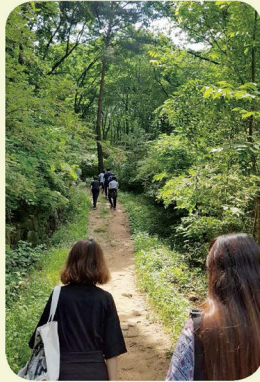


부천Y 철원평화순례 / 철원 소이산



부천YMCA

사랑



꿈

아름답





# 광장

- 01** 머리글 ..... 2  
삶의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  
| 김기현
- 02** 클럽이야기 ..... 5  
[복색가게]  
2018 새활용 강좌를 마치고... | 최성자  
[등대생협]  
사림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촛불운동회 | 서가수  
[좋은아빠모임] 1박2일 강원도 영월  
캠핑을 다녀와서... | 기정민
- 03** 교실탐방 ..... 13  
[아기스포츠타]
- 2018년 1학기 공개수업 이야기  
| 김소진 (7세 한겨레반 이서린 엄마)
- [어린이Y]  
야간산행 이야기 | 지향희(김도윤 어머니)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순천만 생태여행 후기
- 04** 의창한담(醫窓閑談) ..... 24  
[진료실에서 나누는 세상 이야기]  
차가운 문명 | 박중훈
- 05** 세상을 보는 창 ①, ② ..... 26
- 06** 만화로 보는 밥상독록 ..... 28  
밥상일곱, 동물복지?  
얼마나 알고 있나요? | 연은미
- 07** 지역이슈 ..... 30  
[대장들넉 금개구리 대탐사]  
금개구리를 찾아라!  
뜨거웠던 지난날을 가슴에 새기며,  
이제는 생활정책운동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 최진우  
[스쿨존 특고압 반대운동]  
시민의 생명, 안전, 건강이  
우선입니다!
- 08** 우리 생활문화 이야기 (36) ..... 43  
무서운 호랑이 | 한면희
- 09** 회원광장 ..... 45  
대안생리대 강사양성교육을  
마치며... | 이서경  
[철원 평화순례 후기]  
이 땅에 평화를... | 주지영  
[문화산책]  
생리공감 & 피의 연대기 | 왕정현
- 10** 부천Y 이모저모 ..... 54  
클럽일정 및 주요일정 ..... 56

발행인 김영주 편집인 김기현 발행일 2018년 8월 21일 발행처 부천YMCA  
광장지재단 박중훈, 한정숙, 왕정현, 김현주, 노진영, 연은미, 박명애, 박다정, 채시은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69번길 42(중동) 전화 032)325-3100  
팩스 032)325-3108 홈페이지 www.pcmca.or.kr 디자인·제작 신명기획 02)2273-6128



## 한국YMCA목적문

한국기독교청년회는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삶을 따라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역사적 책임의식과 생명에 대한 감성을 일구어,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일하며, 민중의 복지향상과 민족의 통일 그리고 새 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YMCA새 목적문 전문, 1976년 제정, 2014년 개정)

# 삶의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sup>1)</sup>



부천YMCA 사무총장 김 기 현

6.13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 속에서 “민주당 압승, 한국당 심판”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민심의 폭넓은 지지를 얻고<sup>2)</sup> 새로 출범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사람 중심, 지속가능성, 시민참여** 등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성공하길 기대한다.

부천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부천Y 시민정책 100인 클럽’ 대리인 최진우 후보는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부천Y는 시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생활운동, 새로운 방식의 시민운동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더 나은 정치,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삶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있다는 것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6.13 지방선거 결과, 경기도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49.1% 득표율에 의석

1) 글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 정치개혁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의 강의(7월 17일 오후 7시, 부천Y 직원나눔)를 요약한 것이다.

2) 민주당 장덕천 후보는 66.19% 득표로 부천시장 선거 최초로 60%이상 지지를 받고 부천시장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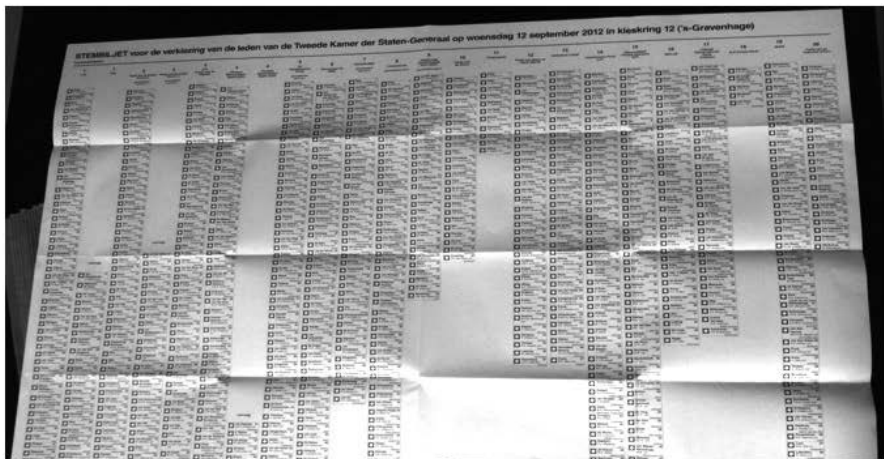
수 95%(135석), 자유한국당 23.7% 득표율에 의석수 2.8%(4석), 바른미래당 7.2% 득표율에 의석수 0.7%(1석), 정의당 7.2% 득표율에 의석수 1.4%(2석)으로 YMCA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주장하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한국당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다.

부천시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28명의 시의원 중 민주당 20명, 한국당 8명으로 소수정당이나 무소속은 전무하고, 정의당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11%를 받았으나 1석도 차지하지 못했다.

조선일보(6월 22일자)에 실린 ‘지방선거 후 여론조사’를 보면 구·시·군·의원의 경우 “후보의 이름을 알고 투표했다.”는 사람이 42%, “후보의 이름을 모르고 투표했다.”는 사람이 58%로 이름을 알고 투표한 유권자보다 모르고 투표한 유권자가 훨씬 많다. 그렇다면 정치선진국도 이런 선거를 할까?

### 정치선진국, 민심 = 선거결과

네덜란드 국회의원 투표용지다. 언뜻 보면 어마무시 복잡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위에는 정당 이름(20개 정당), 아래는 정당에서 추천한 비례대표 이름이 적혀있다. 우리는 정당에서 일방적으로 비례대표 순서를 결정하고, 득표율에 따라 순서대로 의석이 배분되어 시민의 선택권이 없지만 네덜란드는 시민들이 고른다. 투표용지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고르고, 그 정당 비례대표 후보 중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골라서” **한번 투표하면 끝이다**<sup>3)</sup>. 정당에서 후순위에 놓였어도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면 당선된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가 많은 정당의 둘째 줄은 중간 이하로 위치해놓았다.

정치선진국인 유럽국가 대부분이 이런 선거제도를 하고 있다. 따라서 30% 지지를 받으면 30% 의석, 7% 지지를 받으면 7% 의석을 차지한다. 시민들의 다양한 가치와 생각,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정당을 창당하기도 쉽고, 누구나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 거대양당 vs 다양한 정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좋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 4년 전 지방선거를 보면, 경상남도의회의 경우 새누리당 득표율 59.19%에 의석수 90.91%(50석), 새정치민주연합 득표율 28.97%에 의석수 3.63%(2석)으로 이번과는 정반대였다.

더 큰 문제는 전국적 대세에 따라 선거가 좌우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같은 정당이 차지하게 되고, 결국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견제와 감시(Check and Balance) 기능이 실종되기 쉽다.**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가치, 욕구, 생각, 생활방식은 이미 다양하고, 건강한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하는 사회적 역량**<sup>4)</sup>을 축적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올 하반기가 절호의 기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강력히 반대하던 한국당이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치개혁에 대한 소신이 남달랐던 **故 노무현 대통령**은 “나는 지금도 여전히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고 말씀하셨다. 사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를 바꾸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변화를 낳는다.**

3) 투표결과 20개 정당 중 11개 정당이 의회에 진출했다고 한다.

4) 선진국에서는 이런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을 학교에서 훈련한다.

녹색가게

## 2018 재활용 강좌를 마치고



최 성 자 (녹색가게 강사)

안녕하세요? 녹색가게에서는 매년 부천시민들을 대상으로 되살림 강좌를 하는데 올해는 “쓰레기는 줄이고 환경은 살리고”라는 주제로 재활용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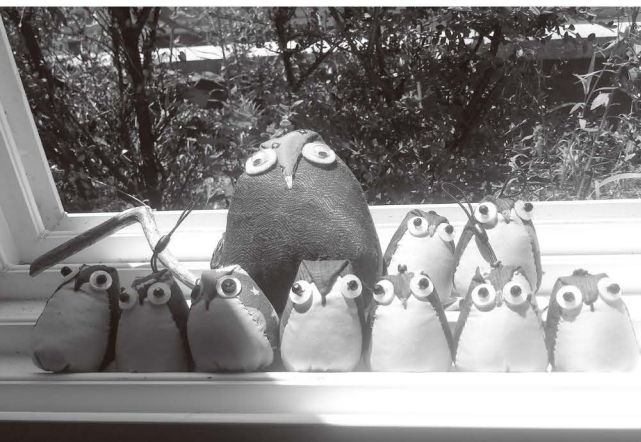
1강에서는 [쓰레기문제 현황과 대안]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는데 저도 놀란 점은 대한민국이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앞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을 확실히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세월 마모되어 형태도 다양한 바닷가에 버려진 깨진 유리조각으로 목걸이를 만드니, 바다 보석으로 예쁘게 거듭나네요. 환경적 의미를 알고 착용하니 나름 자부심이 느껴지는

환경 상품이 되었습니다.



2강에서는 현 양말을 이용한 양말인형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보들보들한 양말은 촉감도 좋고 가지고 놀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름방학에 아이들과 안 신는 양말로 인형을 만들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3장에서는 귀엽고 깜찍한 부엉이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부엉이는 예로부터 집안의 재물과 부를 지켜주며 지혜의 상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핸드폰 고리 장식으로도 활용가능 합니다. 자투리 천으로 부엉이 인형을 만들어 회원님들 가정의 재물과 지혜를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부천쓰레기소각장의 변신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이름도 멋진 ‘부천아트벙커 B39’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

보니 부천의 B, 39는 소각장의 깊이도 39m이고 전시관 앞을 지나가는 도로가 39번 국도라고 합니다. 쉽게 가볼 수 없던 쓰레기 소각장이 이렇게 문화예술 공간으로 탄생했다는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지금 전시하고 있는 작품은 프랑스의 비주얼 아티스트로서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기욤 마망의 ‘티마이오스’와 ‘빛!더 많은 빛을!’이라는 두 가지 작품인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느낌이었고 사후세계와 우주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멋진 작품으로 부천시민이라면 직접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층에는 여러 개의 스튜디오를 만들어 대관도 가능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1층에

는 넓은 카페도 있어서 전시  
관람 후 차 한잔 할 수 있어  
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다양  
한 작품들을 볼 수 있고 시민  
들이 자주 이용하는 친근한  
공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을 살리고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바라지 말고  
나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소리 없는 환경운동 실천가이  
고 싶습니다. 개관한지 얼마  
안 되어 머그잔 부족으로 일  
회용컵에 담아주신 커피가 옥  
에 티네요. 다음 방문에는 개인 텀블러를 꼭 가져가는 진정한 환경시민이 되겠  
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등대생협

# 사귄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쫓불운동회



서 기 수 (인사이드등대 쫓불)

솔직히 기대를 하지 않았다. 육아에 지치고 내 생활하기 바빴기 때문에 쫓불운동회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사귄 활동 지기님들이 모여 사전 모임을 진행했다. 이런저런 게임을 구상하고 준비하고 논의하고... 그러던 중 학창시절 운동회의 기억이 떠올라 그때부터 걱정반 설렘 반으로 당일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쫓불운동회 날.

시작과 동시에 쫓불님들의 열정은 너무도 뜨거웠다. 그중 허벅지 찌름과 장에 물달리기는 모두 하나가 되어 목이 쉬도록 응원하였다. 몸이 까지고 멍들고 힘이 빠지는데도 열심히 달리고 소리 지르고 그 열정은 마침내 극에 달았다.

아마도 육아만 하다 에너지를 다 쏟은 듯하다. 식지 않은 열기를 뒤로한 채 각자 싸운 나물로 맛있는 비빔밥을 먹으며 즐거웠던 쫓불운동회는 각자 마음속에 오래오래 되새기기를 바라며 끝을 맺었다.

몇 년 동안 가정주부로서 육아와 살림만 해왔는데 누구누구 엄마 누구 아내가 아닌 학창시절 나를 기억하게 해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좋은아빠모임

# 1박2일 강원도 영월 캠프를 다녀와서...



가 정 민 (윤지아빠)

처음 참여하게 된 좋은 아빠들의 모임 부천YMCA 좋은아빠모임 이전에 TV에서 방영된 '아빠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훗날 아이가 크면 나도 아이와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딸아이를 낳게 되었고, 아이가 5살이 되고, 많은 걸 보고 체험하게 해주고 싶어 용기 내어 좋은 아빠 모임에 문을 두들기게 되었고, 운이 좋게 1박2일 아빠랑 아이 캠프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설렘반호기심반으로 시작되었고, 과연 내가 아이와 잘해 낼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강원도 영월캠프, 유난히 더웠던 7월, 아이와 나는 첫번째 장소인 백룡동굴에 도착하였습니다. 먼저 도착하신 선배 아빠들도 많이 계셨고, 회의에서 뵈던 분들도 계셨고 처음 뵈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모두 인사를 나누니 캠프에 대한 기대가 부풀러 올랐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동굴 체험을 할 수 없어 아쉬웠지만, 백룡동굴 주변 경치는 너무 좋았습니다.

주변에 맛있는 송어 송어정식식당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선돌 관광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차량으로 꼬불꼬불 산길을 올라 선돌관광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5분 정도 산길을 올라 도착한 장소는 마치 한쪽에 그림을 옮겨 놓은 듯한 경치의 너무 멋진 곳이었습니다. 멋진 배경을 뒤로하고 단체 기념촬영도 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별마로천문대로 출발하였습니다. 산 위에 위치한 별마로천문대는 마치 발 밑에 모든 세상이 있는 듯한 멋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패러글라이딩을 모의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었고, 천문대 앞쪽에서는 패러글라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곳에서 A조, B조 팀으로 나뉘서 저녁식사 메뉴를 걸고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기차기, 낱말 맞추기, 식초 넣은 사이다 맞추기 등 아이들의 뛰어난 상상력과 재치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운이 좋게 우리 팀이 많은 돈을

획득하였고, 영월시장에 가서 맛있는 저녁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식사를 하고, 째째한 밤하늘을 보며 지친 몸을 이끌고 영월에 위치한 숙소로 도착하여 맛있는 닭강정, 족발 등의 야식을 먹으며 첫날 일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둘째날, 아침 8시에 일어나 선배아빠들과 아침식사를 하고 캠프에 하이라이트인 동강에서의 래프팅이 남았습니다. 서둘러 아침식사를 마치고, 동강 하류에서 버스를 타고 동강 상류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래프팅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팔아이가 아직 어려 안 타려고 했지만, 두 손을 꼭 잡고 다독이며 보트에 탑승하였습니다. 13km 정도의 긴 구간이었지만, 같은 배에 탑승한 팀원들끼리 하나로 뭉쳐 돌뿌리 등으로 힘든 구간도 웃으면서 무사히 래프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마지막으로 숙소에서 단체촬영을 하고 이별의 인사를 하고 1박 2일 일정이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캠프기간 동안, 아이와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고 선배아빠님들의 조언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내성적이었던 아이가 캠프기간동안 말이 많이 없었는데, 끝날 때쯤 되어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니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신 아빠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아이가 어려서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주신 모든 아빠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기스포츠탄

## 2018년 1학기 공개수업 이야기



김 소 진 (7세 한겨레반 이서린 엄마)

어느새 7살 아기스포츠탄의 어엿한 형님반이 된 아이의 공개수업에 다녀왔다. 7세 공개수업이라 마음의 여유를 한껏 부리고 체육관에 입장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느새 나는 15kg 육중한 둘째를 한 팔에 안고 한 손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봄부터 지난 3개월간 아이가 왜 그렇게 당당하게 저팔게 춤을 추었는지... 길을 가다 만난 여자 경찰을 왜 그렇게 반가워했는지... 공개수업을 다녀와서 궁금증이 풀렸다.

### 아이들이 주인공인 수업

“차렷” “와이!” 아이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자유스러운 몸짓과 표정의 맨발달리기를 시작으로 농구수업, 마스게임이 진행되었다. 공연이나 특별한 퍼포먼스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선생님과 아이들의 일상이 고스란히 공개되었다. 질서 속에서 아이들은 음악에 맞춰 자신의 몸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동안 닦아왔던 드리블 솜씨를 뽐내기도 하였다. ‘보여주는 것’ 이상의 성취감과 자신감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감싸고 있었다.





### 나, 너, 우리 모두에게 열린 수업

후반부에 진행된 영지수업에서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명상으로 시작했다. 합창을 하듯 시조 4개를 단숨에 읊조리고, 가방 주인 추론하기, 동화자료 등을 통해 성역할(성평등)에 관해 생각을 나누었다. 7세 아이들에게 성평등에 관한 주제는 남자놀이/여자놀이 그리고 엄마일/아빠일 등의 고정된 시각을 말랑말랑



하게 해줄 수 있는 적절한 주제였다. 특히 선생님께서 “엄마가 하는 집안일은 아빠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아빠, 엄마가 같이 하는 거예요.” 하는 대목에서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후 아이들, 학부모 모두가 함께 주고받는 이야기

가 더해져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더욱 풍성해졌다.

공개수업 말미에 혹여 내가 아이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아이를 더 열렬히 응원하고 호응하지 못했던 순간이 떠오르면서 살짝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아이가 가진 씨앗 그대로를 존중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것을 각오하면서 아이의 손을 잡고 교실을 나섰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이 씨앗들을 지켜보며 열심히 발아시켜 주실 선생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어린이Y

## 야간산행 이야기



지 향 희 (어린이Y 김도윤 어머니)

도윤이가 어린이Y를 다녀와 나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별스럽지 않게  
확 읽어보고 내려놓으려니 도윤이가 나에게 “엄마 나 여기 꼭 갈 거야” 란다.

그 소리에 다시 정독.

야간산행? 야간산행... 야간산행? 그것도 평일?

“도윤아, 엄마 회사 가는데... 야간산행 못 가~”

못 간다는 엄마 말에 급 풀이 죽은 아들 모습에 또 마음이 짝해서 남편과 긴  
급회의에 들어갔다. 남편은 도저히 시간을 못 맞추고, 어찌됐나...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으니... “엄마랑 같이 가자!” 한마디에 또 금세 싱글벙글.

야간산행 당일 퇴근시간 전부터 급하게 일 마무리하고 칼퇴근해서 서둘러 집  
으로 왔다. 저녁도 못 먹고 택시타고 서둘러 모임장소로 출발. 금요일이라 차는  
어찌나 막히던지 겨우겨우 시간에 맞춰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드디어 산행 시작.

입구에서부터 물려드는 모기떼, 아는 사람도 한 명 없고, “도윤아 같은 반 남  
자 친구들은 하나도 없네?”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이 녀석... 다른 친구들은



하나도 신청 안 했는데 너는 왜 한 거니?? 굳이 왜?... 라는 생각을 했다.

산 입구에서부터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신다. 부천 유일 1급수에서만 산다는 도롱뇽 알도 보고 가재도 보고 만져보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도롱뇽 알을 바라보는 아이를 보며 피곤함이 사라졌다.

평소엔 그냥 지나쳤을 나뭇잎도 한 장 떼어 향도 맡아보고 맛도 보고 개암 나뭇잎으로 눈, 코, 입을 꾸며 가족도 표현해보고... 손전등 하나 없이 달빛으로만 비추는 산속이 얼마나 밝은지, 어둠 속에 숨겨진 산의 모습과, 코끝으로 전해지는 꽃향기, ‘무서워 하지마’라고 하듯 울어주는 새소리, 맨발로 걷는 산의 느낌까지 무더진 오감이 살아나는 듯 했다.



오늘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평생 느껴  
보지 못했을 감정들. 오래된 고목을 끌어  
안으니 나를 위로해 주는 느낌이었다.

산 정상에 올랐을 때 마치 우릴 기다렸  
다는 듯 산 아래에서 터지는 불꽃놀이까  
지... 빙 둘러 앉아 돌아가며 읽었던 시  
한 수마저 모든 것이 완벽했다.

불빛 하나 없는 숲이 주는 감동이 얼마  
나 컸던지.

너 아니면 모를 뻔했다.

호기심 많은 아들 엄마하기 참 힘든데

호기심 많은 아들 엄마하기 참 잘했다.

산 아래 내려와서 아이가 건네준 꽃 한  
송이를 받아 들고 잠깐이나마 힘들게 무  
슨 산행이냐고 투덜댔던 나를 반성해본  
다. 도윤아, 엄마에게 이렇게 소중한 시  
간을 선물해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 야간산행은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오자.



## 노랑제비꽃

반철환

노랑제비꽃 하나가 피기위해

숲이 통째로 필요하다

우주가 통째로 필요하다

지구는 통째로 제비꽃 화분이다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 순천만 생태기행 후기

---

|    |                                            |
|----|--------------------------------------------|
| 일시 | 2018. 6. 1.(금) ~ 6. 3.(일) 2박 3일            |
| 장소 |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여수, 순천 일대                      |
| 주제 | 도시를 벗어나 생태감수성 함양하기                         |
| 내용 | 여수, 순천만, 선암사 일대 생태체험활동<br>팀별 미션활동, 활동내용 공유 |

---

## 0일차 - 사전교육

순천만 생태기행의 후기!! 많이 기다리셨죠.

5월 31일 금요일에는 부천남중학교에서 순천만생태기행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교육이 있었어요. 댁과 보라가 직접 부천남중학교로 찾아가 함께 가는 친구들과 첫만남을 가졌어요.



우리가 왜 순천만생태기행을 가는지, 함께 가는 멘토들은 누가 있는지, 무슨 활동을 할건지 공유하는 시간과 안전교육, 조 나누기 시간을 보냈어요. 나래를 잘 알고 있는 친구도 모르는 친구도 있었지만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전교육을 잘 마쳤답니다!

하루 뒤면 떠나는 순천만생태기행! 설레는 마음 안고 다음날 아침에 만나요~

## 1일차 - 오동도

첫날 아침 날씨가 무지 맑아요! 버스를 타고 무려 5시간이나 걸려 도착한 여수 오동도!! 이곳에서는 조별로 첫번째 팀 미션을 했어요. 이름하여 오아시스!(오동

아일랜드의 시크릿 스페이스를 찾아라) 처음보는 친구들과 멘토로 만들어진 조였지만 팀 미션을 하면서 친해졌어요. 오동도에 숨겨진 각 장소들을 찾아 조원 모두 나온 사진을 찍어왔어요. 조 이름도 멋지게 만들어온 친구들! 지웅쓰조, 동백조, 다문화가족조, 작작하조, 프렌즈조의 화기에애한 모습들 보이시나요? 벌써부터 초록초록한 기운을 가득 받으니 희색빛깔 도시를 벗어난게 실감나요. 이렇게오동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텁혀진 몸과 마음을 댄스테라피로 풀어보기로 했어요!

팀 미션을 끝내고 한 곳에 모인 우리는 나무가 우거진 공간에서 자유롭게 몸을 사용해 나를 표현하는 댄스테라피 “자기소개”를 해봤어요. 평소 의자에 앉아있느라 몸을 잘 사용하지 않아서 춤동작을 만드는게 어색했지만 멘토선생님의 도움으로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 1일차 - 돌산공원

맛있는 저녁밥을 먹고 돌산공원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는 해가 쨍 떠있었지만 강강술래를 배우고 함께 해본 뒤에는 어둑어둑해졌더라고요. 그만큼 시간이 빨리갈 정도로 아름다운 공간에서 신나게 뛰며 배우는 강강술래는 생각보다 정말 재밌었어요!! 강강술래를 마치고 모두가 돌아가며 소감을 나누

는 자리에는 함께해서 즐거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강강술래를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천에 있는 숙소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러 가는 중에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생태도시 여수의 야경을 봤어요! 사진으로만 봤던 돌산대교의



야경은 실제로 보니 더 아름다웠고 이곳에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곧 가게 될 순천의 모습도 벌써 두근두근!

## 1일차 - 순천



드디어 하루 일정을 마치고 버스에 올라 순천으로 이동하는데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거예요! 버스에서 내린 뒤 공기가 확실히 달랐어요. 밤이라 보이지는 않지만 순천만 습지 바로 앞에서 맡는 밤공기와 풀냄새가 정말 좋았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방 배정을 받고! 잠깐 쉬고 난 뒤에 거실에 모여 점심에 했던 팀 미션 오아시스 발표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조는 이렇게 미션을 했는데 다른 조는 어떻게 미션을 했는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각 조의 발표가 끝나고 한명씩 돌아가며 첫날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많이 몸을 사용해서 지친 하루였지만 내일 일정이 벌써 기대가 됩니다!

## 2일차 - 순천만 국가공원

맛있는 아침밥을 먹고 2일차 첫 번째로 간 곳은 순천만국가정원이라는 곳이었어요! 세계 여러나라의 정원이 꾸며져있고 이곳에서 팀 미션2 “정원 만들기”를 할거래요. 각 조가 살고싶은, 만들고싶은 정원의 모습을 스케치 북에 그려오는 미션! 잘 꾸며진 순천만국가정원 이곳저곳을 살펴다니며 컨셉사진도 찍어보고 해가 뜨거울 때는 그늘에서 쉬며 정원을 그리기도 하고요ㅎㅎ 날씨가 점점 더워져 분수대에서 물장난도 쳤어요!





## 2일차 - 순천만 생태습지

점심을 먹고 난 뒤 간 곳은 순천만생태공원! 오전에 갔던 순천만국가정원이랑은 또 다른 매력이었어요! 순천만국가정원은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은 인공자연이었다면 순천만생태공원은 자연 그 자체였어요! 우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갈대밭과 습지를 보기 위해 찾아왔어요. 이곳은 계절별로 색이 다르다고 하는데 기회가 될 때 다른 계절에도 꼭 와보고 싶어요~!><



용산전망대까지 올라가는 길에 수많은 계와 짙뚱어가 있는 갯벌이 신기했고 드넓은 자연이 있는 곳에 있으니 저도 모르게 신났어요. 사실 전망대까지 올라



가는 길은 조금 힘들었지만 든든한 친구들과 멘토선생님들이 있어서 힘낼 수 있었답니다ㅎㅎ

용산전망대에 도착하고 본 풍경은 정말 그림 같았어요. 힘들었던 마음이 싹 사라질 정도요. 정상까지 잘 올라왔다는 보람과 함께 순천만이 주는 자연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인드라망”이라는 댄스테라피를 했어요. 엉켜있던 손이 하나씩 풀리는게 신기했고 복잡하게 모두 얽혀있는 것도 하나의 예쁜 원이 되는 걸 보고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꼬여있는게 없고 모든게 예쁘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연과 사람도 이렇게 예쁘게 하나씩 풀어가고 싶어요.

## 2일차 - 숙소

숙소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간 곳은 순천만천문대! 별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도시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수많은 별자리를 직접 찾고 목성의 위성들, 성운

까지도 볼 수 있었어요! 자연생태가 잘 보존된  
곳에서만 볼 수 있는 밤하늘이라 그런지 특별  
했습니다.

팀 미션 “정원만들기”의 발표시간이에요! 먼  
저 발표할 사람 손 번쩍!! 각 조가 그린 정원의  
모습에는 꿈과 소망, 자연이 골고루 섞여있었  
어요. 멋진 창의력을 보여준 모두에게 박수~!!  
마지막 밤이 아쉬워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잠들었습니다.

### 3일차 - 선암사

마지막날 아침! 졸린 눈을 비비고 선암사로  
향했어요. 선암사까지 걸어가는 길은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까지 고즈넉하게,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 3일차 - 전통야생체험관



선암사를 지나 숲길 따라 도착한 전통야생차체험  
관에서 전통차를 마시는 법을 배웠어요. 조용하고  
시원한 한옥에서 차를 직접 따라 마시니 마음이 편  
안해졌어요. 이곳에서 기행이 끝난 소감을 한 명씩  
돌아가며 소감을 나눴어요. 기행이 재밌을 수 있게  
만들어준 모두에게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뒤로하고 부천으로 올라가는 길  
에서, 다음 생태기행이 또 기대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끝.

진료실에서 나누는 세상 이야기

## 차가운 문명



박종훈

(부천Y 중경이사장, 삼화한의원 원장)

고전 평론가 고미숙씨는 근대문명을 한없이 ‘차가운 세상’이라고 했다.

천기(天氣)를 거슬러 사는 오늘 날 문명의 정곡을 찌르는 말이다. 더울 땀 차갑게, 추울 땀 덥게 사는 생활, 게다가 음식까지 여름, 겨울 따지지 않고 입맛에만 맞춘다. 이런 문명은 한의학의 위기(衛氣)나 소화력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데 쉽게 말하면 면역력과 저항력의 약화다.

정선 백운산을 다녀오며 한의학적 해안을 경험했다.

전날 텃밭에서 몹시 땀을 흘리고 과로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산에 들었다. 등산로와 평지 길을 합쳐 대략 11km를 6시간 정도 걸었다. 그날은 폭염주의보에, 피약별이 사정없이 내리쬘었다. 땀은 쏟아지고 기운은 까부라졌다. 산을 내려서자마자 찬 맥주를 정신없이 들이켰다. 귀가 중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 에어컨을 세게 틀었다. 도중에 휴게소에 들러 아이스크림 과자와 냉커피를 먹었다. 그제서야 갈증과 열기가 주춤하였다.

그런데 운전 중 몸에 이상반응이 나타났다.

몸은 찬데 머리에서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웠다.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면 조금 나아지는 듯 했지만 몸의 겉은 더워져 괴로우면서 머리는 계속 어지럽고 땀이 났다. 속도 차가워지고 더부룩하며 메스거리기도 했다. 고속도로라서 차창을 오래 열고 달릴 수가 없었다.

서너 시간을 달려 집에 도착해서도 증상은 좋아지지 않았다.

소화제를 먹으려다 찬 기운에 상한 냉방병이란 생각이 미쳤다. 마침 집에 있던 고량주를 소주잔으로 한 잔 정도를 마셨다. 알콜농도가 높은 술은 그야 말로 화주(火酒)로 불이나 마찬가지. 반응은 빨랐다. 10여분도 되지 않아 방귀가 대포같이 놀랄 만큼 큰 소리로 연이어 터졌다. 그와 함께 메스꺼움과 아랫배의 팽팽함과 어지러움과 식은땀이 그쳤다. 이런 신호한 약이 또 있을까.

과도한 찬 기운으로 소화기관이 움직이지 않아, 즉 체하여 수족과 배가 차며 가스가 차오르고 열기는 상부인 머리로 몰려 울체되니 식은땀과 어지러움이 나타난 것이었다. 불같은 고량주로 소화기관을 덥히니 위, 장이 움직이고 결과로 체기가 풀린 것이었다. 열기가 아래로 내려와 찬 기운을 덥히고 더워진 찬 기운은 머리로 올라(水昇火降) 소통이 되어 증상을 없앴다. 비로소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술은 예부터 아주 훌륭한 약이다.

한의학에서는 지금도 아주 훌륭한 약의 위치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서의학에서 술은 약의 위치를 잃고 독의 일종으로 간주되곤 한다. 그것은 몸과 병을 따로 보는 기계의학의 결과다.

한의학은 자연과 뗄 수 없는 의학이다.

인체는 자연의 이치에 따르므로 병도 그런 차원에서 살핀다. 즉, 우주와 소통하는 직관의학(直觀醫學)이다. 그래서 ‘인체는 소우주’라 한다. YMCA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질서를 따르는 의학이다.

자연의 이치는 겉이 더우면 속이 차지고 겉이 추우면 속이 더워져 평형을 이룬다. 따라서 여름에는 찬 음식이나 찬 기운이 과도하면 탈이 난다. 이른바 ‘더위 먹는 병’이나 요즈음 ‘냉방병’이 그런 현상이다. 이만하면 상식과 달리 냉면과 아이스크림은 겨울에 맞고 삼계탕이 여름에 좋은 까닭을 알만 하다. 철에 맞는 음식의 선택은 삶의 지혜다. 더불어 여성의 몸을 생각해 보자. 음체인 여성의 몸은 차가워지고 기가 울체되기 쉽다. 찬 기운에 특히 취약하다. 따라서 뭉쳐서 생기는 암 같은 종류의 질병에 잘 노출된다. 아랫배나 손,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 역시 건강을 지키는 지혜다. 여름철엔 더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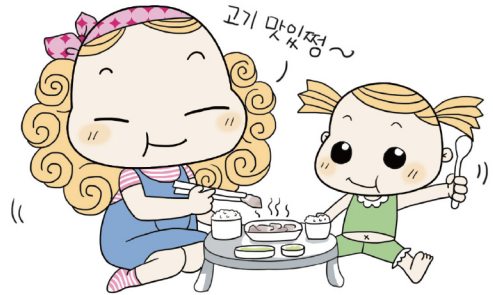


# 드대(바사)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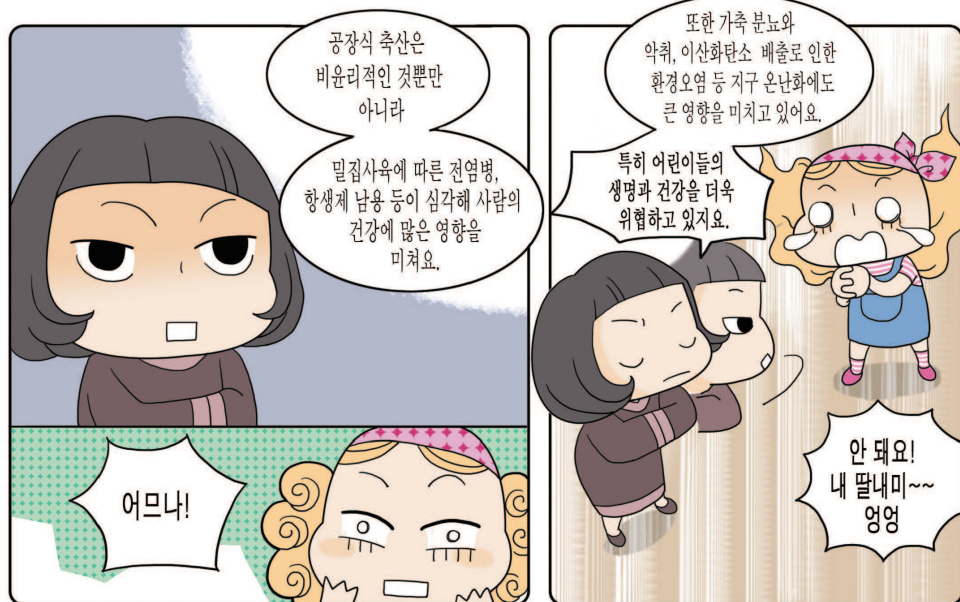
밥상특목

밥상 일곱. 동물복지 얼마나 알고 있나요?

글, 그림 연은미



동물도 사람처럼 고통과 스트레스, 불안, 두려움, 좌절, 기쁨 등을 느낀다.  
 동물복지는 영국 농장 동물복지위원회가 규정한 ‘동물의 5대 자유’를 바탕으로 한다.  
 “동물의 5대 자유”란 **배고픔, 불편함, 질병, 두려움, 활동의 부자유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마침> 다음에 만나요~~



## 대장들녘 금개구리 대탐사

# 금개구리를 찾아라!

6월 23일 토요일 오전. 날씨 매우 맑음.

부천, 서울, 인천 시민들과 서울시립대 환경생태연구재단 연구팀, 환경생태연구회 청미래 회원 등 75명의 시민조사단이 8개 팀으로 흩어져 대장들녘 일대에서 금개구리를 찾아 나섰다. 이날, 시민조사단이 대장들녘 일대에서 2시간 동안 발견한 금개구리는 총 96마리!

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금개구리의 서식지 대장들녘! 금개구리가 살수 없는 곳엔 사람도 건강하게 살수 없겠죠? 부천의 마지막 남은 논습지 대장들녘, 우리 함께 지켜나가요!



### 금개구리는!

등에 선명한 금색 두 줄과 노란색 배, 눈동자도 반짝반짝 금색 테두리로 빛남. 하루 종일 물웅덩이에서 10m 이상 움직이지 않음. 행동반경이 넓지 않아, 서식지가 훼손되면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듬. 2005년 국가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되어 보고받고 있는 법정보호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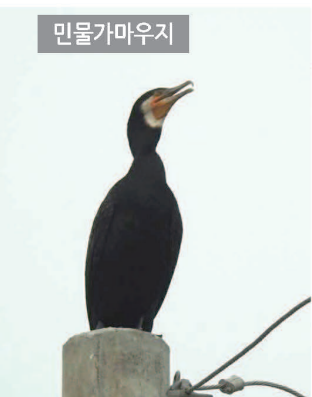


# 대장들녘에 살고있는 친구들!

왜가리와 흰뺨검둥오리



민물가마우지



붉은머리오목눈이



황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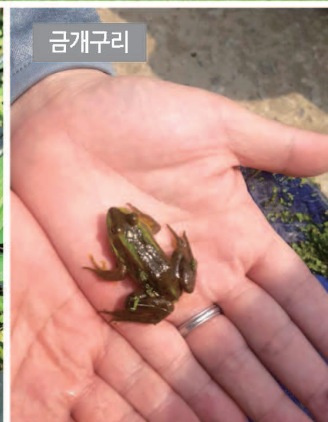
금개구리



금개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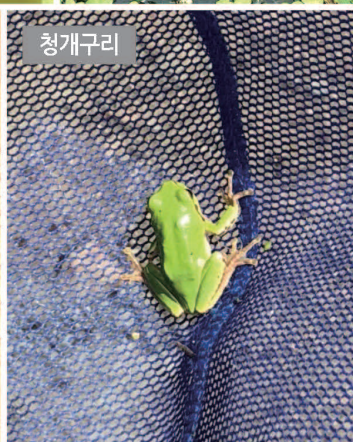
금개구리



금개구리



청개구리



참게



## 뜨거웠던 지난날을 가슴에 새기며, 이제는 생활정책운동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천Y 시민정책 클럽 대리인  
최진우 (부천Y 이사, 환경전문가)

2018년 4월 20일 「부천YMCA 시민정책 100인 클럽」을 발족하고 50여 일 동안 우리는 가히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무급자원봉사자들의 영혼이 담긴 손짓과 몸짓, 목소리로 우리나라 선거역사상 볼 수 없었던 맑고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중동신도시를 뒤덮은 보라색 물결, 유세차 대신 마을 곳곳을 가로지르는 역동적인 자전거부대, LED TV 동영상을 홍보하는 친환경 전기카트카, 모두 함께하는 신나는 율동, 청년학생들의 고운 눈망을 등을 통해 신나고 주목받고 감동있는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부천YMCA 회원과 실무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풀뿌리민주주의 선거운동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대장들녘을 지키고 미세먼지 없는 부천을 염원하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보라색 현수막과 옷을 보면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우리가 함께했던 그날이 떠오르게 됩니다.

투표 전날, 부천일보에서는 우리를 ‘한 편의 시 같은 영화’, ‘풀뿌리민주주의 향한 회심의 역작’으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보라색 자전거 물결이 파도를 친다. 마치 바다와 같다. 무급 자원봉사자가 거리에 나서 마이크를 잡는다. 춤추고 노래하며, 지지를 선언하며 환경노래를





나눠부르는 신명나는 도심 속의 한판 곳이다. 막대한 시민세금이 들어가는 영화제가 아니라 세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지만 축제가 이뤄지는, 한 편의 시 같은 영화다. 최진우 후보는 21세기 부천시민운동의 중심으로 우뚝 선 부천YMCA의 풀뿌리민주주의를 향한 회심의 역작이다.’

그러나, 3,520표(5.6%)라는 초라한(?) 투표결과는 우리의 열망과 염원을 만족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선거운동에 열심히 참여했던 분들, 우리를 독려하며 지지해준 분들, 관심있게 지켜 분들에게 적지 않은 슬픔과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더 잘하지 못해 아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결과를 놓고 서로에 대한 비난과 원망이 난무하고, Y조직이 분열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는 명백히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회원들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방선거 참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선거운동 참여의 성과를 기록하고, 선거운동 기획 및 활동에 있어 미흡한 부분을 복기하는 평가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향후 시민정책클럽 및 부천Y 시민운동의 방향성을 모색했습니다. 지방선거 참여의 계기가 되었던 대장들neck지키기 운동도 기세가 꺾이지 않고, 선거운동에 함께 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더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치루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값진 운명공동체임을 확인하고 생활정책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다짐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거운동 당시에 숨쉬고 싶은 부천을 염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기대하고, 시민이 진짜 주인되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회원들의 마음이 ‘환경전문가 최진우’로 촉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대리인으로서 ‘최진우’를 응원하고 상징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진우’가 아닌 우리 생활정책운동 공동체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회원운동과 시민운동 차원에서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 많은 분들이 염원했던 ‘최진우’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최진우’를 제 삶의 지표로 삼고 ‘최진우’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진짜 최진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는 그렇게 또 성장하였다! 그리고 그대가 있음에 외롭지 않았다!



부천Y 시민정책 클럽 운영위원장  
정 중 원 (부천Y 이사, 가대 교수)

6·13지방선거에 우리 부천YMCA에서 후보를 내고, 시민정책클럽을 발족하여 보다 적극적인 시민참여의 길을 함께 걷자는 결정이 되었을 때, 기대와 희망의 목소리 보다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컸다는 점에서, 저 역시도 과연 무소속 후보가 선거전에서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후보를 선출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선거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시민참여의 가장 상위의 단계라 할 수 있는 시민주권의 수준으로 우리의 운동이 확대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너무나 고된 50일 간의 선거운동 기간이었지만, 우리가 함께 축제와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예상보다 저조한 득표로 인하여 우리 선거운동의 기술적인 문제, 무소속 후보의 태생적 한계, 우리의 준비부족, 선거 운동 전략, 선거를 둘러싼 정치공학적 구도에 대한 전략적 분석의 미흡 등 다양한 지적이 나왔고, 이와 같은 성찰과 나눔을 통하여 향후 우리의 시민정책 운동과 관련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참여와 운동을 통하여 우리 부천YMCA와 시민정책클럽은 새로운 시민운동의 전기를 맞이하였고, 연대와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실질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책수다를 통하여 시민정책에 대하여 숙의하여 공약을 우리 손으로 만들었으며, 우리가 만든 구호와 정책 어젠더를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실무진과 회원, 이사, 등대지기와 촛불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미래를 고민하고, 하나된 목소리로 정책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 어떠한 시민운동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정책과 참여의 학습이 매우 짧은 1달여 시간 동안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선거운동 과정 중에 우리는 연대하였고, 함께 울고 웃었으며, 혼자가 아닌 우리였기 때문에 고된 선거운동기간을 이겨냈으며, 비록 아쉬운 결과를 받았지만, 또 다른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였음을 기억하며, 강열했던 2018년 6월을 웃으며 추억하는 그 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 대가 있음에 외롭지 않습니다!!!

**김석민** - 처음 해보는 선거운동.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좌절하기도하고.... 무엇인가 성과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지방선거를 통하여 배운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고영주** - 우리가 함께 밟은 자전거 페달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부른 선거송 한 소절 한 소절, 함께 외친 구호 하나 하나는 절대 헛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후보님 말씀처럼 시민들의 마음에 의미있게 남을 것입니다. 선거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과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주신 와이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시민의 생명, 안전, 건강이 우선입니다

현재 부천 상동지역엔 345KV 특고압 송전로 추가매설과 학교앞 전력구 공사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지역주민, 학부모, 시민사회가 모여 시민대책위를 꾸려 대응해나가고 있다. 시민들은 특고압 매설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6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진달래공원 에서 열리고 있으며, 8월 23일 12차 촛불집회를 앞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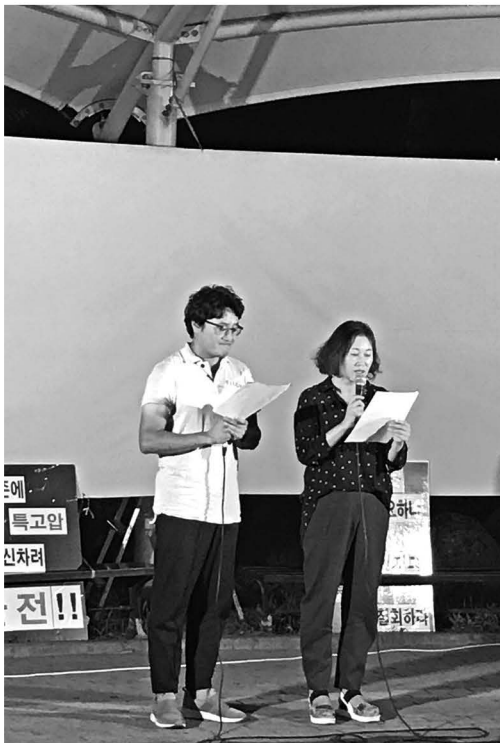
### 상동지역 스쿨존 특고압 문제 해결을 바라는 부천지역 시민사회 선언

부천지역에서 특고압으로 인해 대형 주민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입니다. 한국전력 경인건설본부(이하 ‘한전’)는 “광역정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수도권 서부지역 전력구 공사를 통해 고리형 전력망을 구성한다.”며 특고압 34만 5천볼트 전력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하는 사업을 시작하였고, 수직구 공사를 둘러싸고 대형 주민민원이 발생하여 수직구 수를 줄이고, 일부 노선이 변경되었지만 원래 15만 4천 볼트 특고압이 매설된 8m 깊이 지하전력구 2.5km(스쿨존과 아파트 밀집지역)에 34만 5천 볼트가 추가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상동지역 학부모, 주민들이 5월초부터 ‘특고압결사반대 학부모연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강하게 문제제기를 시작하였고,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3달째 9차 촛불집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34만 5천 볼트가 추가되어도 “안전기준 이하”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는 833mG인 전자파 권고기준이 스웨덴은 2mG, 네덜란드는 4mG, 스위

스는 10mG인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전에서 8m 깊이라는 지하 전력구를 시민들이 직접 확인한 결과 실제 깊이가 약 4m로 확인되기도 하였으며, jtbc에서 직접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한전에서 주장했던 0.1mG과 달리 9.86mG에서 30mG가 검출되어 학부모, 주민들의 한전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동지역과 동일한 상황에 처한 인천 부평구 삼산동 역시 비대위가 구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부모, 주민들의 요구는 34만 5천 볼트가 추가되는 지하전력구 지역이 “스쿨존, 아파트 밀집지역이므로 전력구를 우회하거나 우회가 불가능하면 당초 홍보했던 45~55m 깊이로 설치하라”는 것이고, 한전은 “전자파 우려는 지나친 것으로 안전기준에 미달한다.”며 공사를 강행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천시의회가 7월 27일(금) 본회의에서 ‘상동 특고압 송전선로 설치반대 결



의안’을 의결하고, 부천시에서도 ‘주민협의회’를 재구성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전에서는 부천시를 상대로 7월 27일(금)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사실 특고압 송전선 문제는 우리나라 전력공급체계 전반과 관련된 복잡하고, 장기적인 과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기는 눈물을 타고 온다.”는 말이 있듯이 밀양 할매, 할배들이 10년간 본인들이 쓰는 전기도 아니고, 수도권으로 오는 특고압 송전탑 때문에 눈물로



싸우시면서 ‘전자파 유해성’을 전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람·생명·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대기업·효율 중심으로 정책을 펴면서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전력수요를 지나치게 많이 잡고, 발전소 건립 등 생산량도 지나치게 높게 잡아 논란이 되었고, 촛불시민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보다 전력수요를 무려 11% 낮게 잡았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 위기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저에너지사회**로 변해야 하고, 특고압 송전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분산형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상동지역 스쿨존 특고압 반대문제는 이명박 정부를 뒤흔들었던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 최근 GMO 식품의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며 20만명 이상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일 등과 같이 **생명, 안전, 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과거와 다르게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상동지역 스쿨존 특고압 문제는 과거에 만들어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금까지 힘과 힘의 대립으로만 가면 갈등, 불신이 증폭되고, 시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게 됩니다. **만일 한전이 시민들의 생명, 건강,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않은 채 법적 절차만 거쳐서 공사를 강행한다면 자칫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한전은 법적 기준만 강조하며 공사를 강행하여 **자칫 주민들과 극한 갈등을 야기하기 보다는 과거와 달리 높은 안전 기준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여** 시민사회, 독립적인 전문가들과 함께 생명, 건강, 안전문제를 검증하면서 스스로 표방하고 있는 ‘글로벌 윤리 선진기업’이 되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둘째, 부천시는 해당 지역만이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시민 대책기구’**를 만들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심판에 대응해야 함은 물론 시민들이 우려하는 생명·건강·안전에 대한 전문적 검증,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대안 모색 등이 ‘범시민 대책기구’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동지역 많은 학부모, 시민들이 폭염 속에서도 세달 째 직접 행동하고 있는 스쿨존 특고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되고, 더 이상 극한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부천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가 해결의 주체로 함께 나서야 합니다.

2018년 8월 9일

### 부천지역 시민사회 선언

강한솔(천주교인천교구부천노동사목 조직상담실장), 구자호(부천민예총 지부장), 권오광(민주노동당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의장), 김기현(부천YMCA 사무총장), 김낙경(부천환경교육센터 사무국

장), 김병선(시민참여센터 상임대표), 김보연(부천운수(주) 대표), 김선환(정정당당 대표), 김숙환(부천YWCA돌봄과살림협동조합 이사장), 김영섭(드림교회 담임목사), 김영순(부천YWCA 회장), 김영주(부천YMCA 이사장), 김은아(부천YWCA 팀장), 김정연(부천여성노동자회 회장), 김중해(가톨릭대 사회복지와 교수), 김해랑(부천시민아이쿱생협 이사장), 김행란(부천YMCA 사회교육부 부장), 김홍여(부천YMCA등대생협 마을지기), 나유진(뜰안의작은나무도서관 관장), 노진영(부천YMCA등대생협 이사장), 박명애(부천YMCA 회원부 부장), 박미현(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박병화(상동21세기교회 담임목사), 박윤수(그길공동체 담임목사), 박정현(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박종훈(삼화한의원 원장), 박주식(가톨릭대 영어영문학부 교수), 박태우(부천청년회 회장), 박형수(동양미래대학교 교수), 박행우(부천YWCA 이사), 법공(향림사 주지스님), 백선기(부천시민연합 전 이사장), 성양권(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손인환(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소장), 송정호(상동교회 담임목사), 신동한(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상임이사), 신희주(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심명재(부천YWCA 증경회장), 안경선(새시대여성회 사무국장), 안미정(노동문제연구소 대표), 안보옥(가톨릭대 프랑스어문학과 교수), 엄범석(심곡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영담(석왕사 주지스님), 유희주(가톨릭대 생명과학과 교수), 오경숙(천주교인천교구부천노동사목 조직기획실장), 윤병국(부천환경교육센터 운영위원), 원건형(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이사장), 원종호(부천YMCA 재단이사장), 이강문(부평대로우체국장), 이경숙(부천YWCA 팀장), 이경환(원불교오정교당 교무), 이득규(부천민예총), 이상국(가톨릭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이상민(가톨릭대 화학과 교수), 이완(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이완섭((주)롤포밍 대표), 이원돈(새롬교회 담임목사), 이정은(아시아인권문화연대 사무국장), 이정주(해맑은신경과 원장), 이주원(녹색시민모임 대표), 이진식(성공회부천교회 신부), 이창우(가톨릭대 정보통신전자공학부 교수), 이택규(지평교회 담임목사), 이현순(부천YWCA 사무총장), 이홍민(가톨릭대 법학과 교수), 임민아(마을콕 대표), 임종한(인하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경표(제자교회 담임목사), 정문화((사)한국청소년육성회), 정종원(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정지태(평화교회 담임목사), 정진(회복적 생활교육연구소 소장), 조규석(순천향대 교수), 조대원(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사무처장), 주성돈(경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순영(부천YWCA 부회장), 최진우(환경생태연구재단 상임이사), 최재숙(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최현주(부천새시대여성회 회장), 최혜연(부천시민아이쿱생협 활동국장), 한유리(부천민중연대 집행위원장), 한효석(담쟁이문화원장), 허상윤(부천YMCA 부이사장), 허원배(성은감리교회 담임목사) / 총 84명

# 무서운 호랑이



한 면 회

(부천YMCA등대생활협동조합 이사)

몹시 더운 여름입니다. 하늘에서 불뿔이 짹짹 내리쬐어 땅이 높은 열로 뜨겁게 찢찢 끓으며 우리 몸을 푹푹 찌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조금 비겁하지만 더위를 피하여 그늘에서 움직이지 말고 쉬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서운 호랑이 이야기가 어떨까요?

호랑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호랑이에 서 호랑(虎狼)은 ‘범과 이리’이니 호랑이는 ‘범과 이리와 같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무서운 짐승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호랑이는 범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보다 호랑이가 더 익숙하므로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호랑이라고 하겠습니다.

호랑이는 단군신화에서 보면 ‘일웅일호 원화위인(一熊一虎 願化爲人)’이니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원을 세웠습니다. 환웅이 시키는 대로 굴 속에서 쭉과 마늘을 먹으며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지내어 사람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견딜 수가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가 실패했습니다. 곰이 성공한 것에 비교하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뛰쳐나간 호랑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역사학자들은 단군신화의 곰과 호랑이는 진짜 곰과 호랑이가 아닌 사람이고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라고 해석합니다. 또 곰족은 맥족(貊族), 호랑이족은 예족(濊族)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배 계급인 환웅족이 곰족과 연합을 하여 고조선을 건국하였습니다. 왕따가 된 호랑이족은 동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고조선이 지금의 중국대륙 감숙성 섬서성 지역에서 건국했다면 동쪽은 만주, 한반도로 호랑이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서인 산해경(山海經)에 ‘동쪽 지역에 군자국(君子國)이 있는데 사람들이 호랑이를 데리고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산의 임금이라는 뜻인 산군(山君)이라 부르며 크게 포효하면 산천초목이 벌벌 떨 정도로 카리스마와 신령스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절의 뒤에 있는 산신각에 걸려있는 산신도에서 하얀 수염의 산신(山神)과 함께 있는 호랑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호랑이는 나쁜 기운이나 질병 심지어 사악한 귀신도 물리친다고 하여 정초에는 호랑이 그림을 대문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호랑이는 민화에서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호작도(虎鵲圖)는 은혜에 보답하는 호랑이와 반가운 기쁜 소식을 미리 알려주는 까치의 그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곰은 일부가 살고 있지만 호랑이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호랑이는 1921년 경주 대덕산에서 일본 순사와 동원된 포수에 의하여 사살되었습니다.

단군신화에서는 곰이 이기고 곰의 품성이 강조됩니다. 단군은 구월산으로 들어가서 산신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산신은 곰이 아닌 호랑이를 데리고 있음은 무슨 이유일까요?

## 대안생리대 강사양성교육을 마치며...



이 서 경(초공정동대 촛불)

최근 충격적인 이슈로 떠오른 플라스틱의 역습부터 거슬러 올라가서는 작년 릴리안 사태<sup>1)</sup>까지... 우리 생활에서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당연히 써 오던 물건들에 대해 배신감과 불안감이 많이 생긴 요즘이다.

작년 릴리안 사태 때도 혁, 하는 불안감이 있었으나 여태껏 써 오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으므로, 또 먼 생리대의 가격도 만만치 않음에 일회용 생리대 사용을 멈춰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 사실 딸이 없는 나로서는 나하나 앞으로 몇 년 남았을지 모를 그 기간 동안 별 탈 없이, 무사히, 편하게 쓰면 끝날 일이라고 넘겼던 것이다.

그러다 뜻밖의 계기에 들게 된 수업.

요즘 딸 가진 엄마들이 관심 많다는



1) 2017년 8월 여성환경연대에서 릴리안 생리대에 발암물질 있다고 제기하였다.

면 생리대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곧 초경을 시작할 친구 딸 내미들에게 선물이나 할 생각으로 듣기 시작했다. 그런데 세 번의 알찬 수업이 나의 생활에 큰 변화를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일회용 물건들의 사용, 특히 일회용 생리대처럼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다고 생각한 많은 물건들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책임감마저 들었다.

면 생리대 만드는 자세한 방법뿐 아니라, 수돗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깰 수 있었던, 또 현재 지구 환경오염의 실태를 다시금 인식할 수 있었던 알찬 수업이었다.



## 철원 평화순례

지난 7월 14일, 부천Y 회원 44명과 함께 '철원 평화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분단 73년, 오랜시간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그곳에 민족의 아픔이 더해진 철원DMZ. 철원 일대를 함께 걸으며, 평화와 통일을 함께 생각하고 꿈꿔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 이 땅에 평화를...



주 지 영 (서울 원목초등학교 5학년 3반)

지난 7월 14일 아빠와 함께 철원 평화순례에 다녀왔다.

철원까지 가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일정을 시작해서 조금 피곤하기도 했지만 가는 버스 안에서 '평화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나누어보는 소중한 시간이 있어서 졸음을 참고 귀 기울여보았다.

내가 생각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세상'이다.

가끔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 다치고 죽는, 전쟁 중인 나라의 사람들 소식을 듣는다. 전쟁이 무엇인지 겪어보지 않았지만 왜 서로를 미워하고, 다치게 하고, 가족을 잃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난 전쟁이 없는 나라가 평화라



고 생각한다.

두 시간 정도를 달려 제일 처음 도착한 곳은 승일교와 고석정이었다. 전쟁 전부터 짓기 시작해 6.25 전쟁이 지나면서 북쪽과 남쪽이 반씩 짓게 된 승일교 이야기는 참 흥미로웠다. 철원팔경 중 하나라는 고석정도 너

무 멋진 곳이었다. 게다가 한탄강에서 탄 요트는 더운 날씨에 시원한 바람과 물을 느끼게 해줘서 같이 간 아이들 모두가 너무 좋아했다.



콩요리로 점심을 먹고 난 후에는 노동당사에 갔었는데 이곳은 등록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된 곳이다. 1945년 해방 직후에는 이 철원지역이 북한에 속해 있었는데 철원 노동당사가 평양노동당사 다음으로 큰 공산당 건물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DMZ 비무장지대를 갔는데 이곳은 철문을 통과해서 철원평야를 지나가야 했다. DMZ는 굉장히 보안이 철저하고 북한과도 제일 가까운 곳이고, 산으로 둘러싸인 광활한 평야를 지나면서 보게 된 오랜 건물의 흔적들이 인상에 남았다. 버스를 타고 DMZ 구역 안을 돌아다니며 전영숙 선생님께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알려주셨다.

남과 북의 아픈 역사와 분단의 비극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강의를 듣고 생각이 많아졌다.

어른들은 “꼭 통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통일하면 안 좋은 것이 더 많다”라며 나쁘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 나는 통일을 하는 것도 안하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한과 북한이 꼭 통일을 하지 않더라도 종전을 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서로 왔다 갔다 교류도 하면서 더 친한 관계로 지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당장 통일을 외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서로 가까워지고 통일이 앞당

겨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DMZ 안에 있는 국경선 평화학교에도 갔다. 이곳의 정지석 교장 선생님께는 평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나 문화를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 외국에서도 이곳을 방문한다고 하셨다. 우리는 이곳을 자주 찾지도 않고 평화에 관심도 없이 보내고 있지만, 아프리카 출신의 선생님이 평화를 공부하기 위해 이 먼 곳까지 왔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고, 우리의 무관심 때문인지 그분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지금까지 나는 평화와 분단의 역사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었다.





월정역은 남한에서 가장 최북단에 있는 경원선 기차역이라고 한다. 전쟁 때 폭탄을 맞아서 두 동강이 났는데 기차의 앞부분은 북한이 가져가서 현재는 뒷부분만 남아있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글이 참 속상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버스로 이동해서 모노레일을 타고 철원 평화전망대에 갔다. 소이산도 갔는데 너무 더운 날씨에 올라가느라 힘이 들긴 했지만 정상에서 북한 땅과 철원평야가 한눈에 보여 올라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망대에서 저 멀리 있는 북한 땅을 보니 그동안 별 생각이 없었는데 꼭 한번 저곳에 가





보고 싶어졌다. 가서 북한의 초등학교생들을 만나 이야기도 해보고 싶고 북한의 아름다운 곳들도 구경 다니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직 우리나라와 북한은 친한 관계가 아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서로의 땅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실천하려 한다. 바로 북한의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나는 말이 있었다.

국경선평화학교 영상에서 보았던 “**이 땅에 평화를**”라는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다.

남한에도 북한에도 또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평화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 생리공감 & 피의 연대기



왕 정 현 (광장기자단, 마중등대춧돌)

한 달에 한 번, 그날  
불쾌하고, 불편하고, 번거롭게 느껴지는 ‘생리’  
안 했으면 좋겠다.

---

“근데 난 이제 생리 안 해.”

샬롯이 문득 생각났다는 듯 말했다.

“뭐?”

“내 동생도 안 해.”

샬롯은 열여덟 살이 되던 해, 자궁 내 피임 장치를 삽입했다. 성인이 되자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다. 산부인과 주치의를 상담한 후 자궁 내 장치를 삽입하는 시술(IUD, intrauterine device)이 가장 잘 맞으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동생은 임플라논(Implanon) 시술을 받았다. 팔뚝에 아주 얇은 칩을 박아서 호르몬을 조절하는 피임법이란 다. 두 시술 모두 반영구적이었다. 시술을 받으면 배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생리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극도로 적은 양만 하게 된다고 한다.

“피임약을 먹거나 콘돔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안전해. 생리를 안 하기 때문에 생리용품도 살 필요도 없고 한 달에 한 번씩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사실 피임에 편한 것보다 생리를 안 하는 게 더 좋아.” [p.21]

---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한 결과 ‘생리 안 할 권리’를 선택한 샬롯은 1987년생으로 김보람과 동갑내기 친구다.

〈생리공감〉을 읽기 전, 단 한번도 '생리 안 할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다.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거나 부모님과 상의해 본 기억도 없다. 그저 생리를 자연스럽게 받아 들였다고 생각했다. 왜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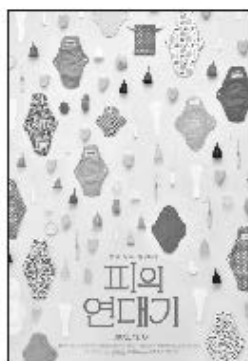
나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샤워를 한 뒤 몸을 닦으며 화장실 세면대 앞에 걸린 거울 속 나를 바라봤다.

사실 작은 가슴이 내 눈에 정면으로 들어오는 건 하루 중 이 순간뿐이었다. 그날 나는 무언가 달라진 것을 발견했다. 가슴은 여전히 작았다. 사실 영화를 만들고 편집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더 작아진 듯 보였다. 그런데 나쁘지 않아 보였다. 심지어 좋은 쪽으로 '개성' 있어 보였다.' [영화 '피의 연대기'중]

〈생리공감〉의 작가이자 〈피의 연대기〉감독, 김보람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 삶을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다. 다양한 시선과 생각을 담아내는 일이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그 생각을 정리하면서 쓴 책 〈생리공감〉에 담백하게 담아낸다. 이 과정에서 내 몸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내 몸을 위한 선택을 한다.

한 달에 한 번, 평균 5일씩, 최대 36년간 흘리는 피 16리터, 우리 몸 전체 혈액의 3배. 일회용생리대, 면생리대, 해면 탐폰, 스핀지, 탐폰, 울 탐폰, 생리컵 등 다양한 생리용품이 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고민해 본적이 있었나?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가?  
내 몸을 위한 아름다운 선택을 하길 바라며,  
이 더위에 '그날'을 보내고 있을 모두를 응원한다.



피의 연대기  
(For Vagina's Sake, 2017)  
/ 다큐멘터리 / 2018.01.18  
/ 감독 김보람



생리공감  
(우리가 나누지 못한 빨간 날 이야기)  
/ 2018.02.09 / 저자

## 세계Y연맹 카를로스 신임 사무총장 방문

8월 7일, Y에 입회하고 나서 가장 인상 깊은 날이었다. 차기 세계 YMCA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신 Carlos Sanvee와 만난 하루였기 때문이다.

오전부터 함께 보내며 통역하면서 부천 Y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입회 6개월 차 신입에게는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한동안 사용하지 않아 많이 까먹은 부족한 영어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드리는 것이 떨림이 가득했다. 차기 사무총장으로서 처음 방문하는 외국이라고 말씀해주셔서 걱정을 한 가득하였지만 친구처럼 격의 없이 해주신 Carlos 덕분에 하루가 훌쩍 지나가 버렸다.

앞으로 실무자로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깊은 깨달음을 주셨다. 시차로 인해 피곤하실 텐데 전혀 내색하지 않은 채 행복하고 밝은 얼굴로 모든 실무자를 맞이해주신 Carlos 사무총장님! 이번에는 준비 시간이 부족했지만, 다음에 뵐 수 있다면 더 열심히 준비해서 사무총장님께 기억에 남을 만한 부천Y 실무자가 되겠습니다.

It is so honored to meet you in Bucheon. Thank you for coming to see us. Hope to see you in London next year! (통역 및 정리 : 어린이Y 김영서)



①~② 청소년문화의집 ③ 점심식사

## 세계Y 연맹 사무총장 방문 일정(Visiting Schedule)

### Newly Appointed General Secretary, World Alliance of YMCAs

**카를로스 신임 사무총장** - 내년 1월부터 임기 시작  
- 토고 출신, 전 아프리카 연맹 사무총장

|             |                                                            |
|-------------|------------------------------------------------------------|
| 10:40       | 부천Y 도착 (Arrival, Bucheon YMCA)                             |
| 11:00~12:00 | 청소년 문화의 집 (Visiting Youth Cultural Center in Songnae dong) |
| 12:00~13:00 | 점심식사 (Lunch)                                               |
| 13:20~13:40 | 녹색가게 (Visiting Green shop)                                 |
| 14:00~14:30 | 휴식 (Time to rest)                                          |
| 14:30~15:00 | 부천Y 회관 투어 (Bucheon YMCA, Building Tour)                    |
| 15:00~16:00 | 부천Y 활동 소개 (Orientaion of Bucheon YMCA Activities)          |
| 16:00~17:00 | 어린이Y 아프리카 댄스 참여 (Participate in Class, African Dance)      |
| 17:00~18:00 | 휴식 (Time to rest)                                          |
| 18:30~19:30 | 저녁식사 (Dinner)                                              |



④ 녹색가게 ⑤ 부천Y 회관 투어 (부천Y 활동 소개) ⑥ 어린이Y 아프리카댄스 참여 ⑦ 저녁식사



## • 클럽일정 •

### 정기모임

일시: 8월 23일 (목) 오전 10시  
장소: 소사 스튜디오

### 정기연습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6층 신나는방

### 낮등대 지기월례회

일시: 8월 23일 (목) 오전 10시  
9월 20일 (목) 오전 10시  
장소: 6층 신나는 방

### 저녁등대 지기월례회

일시: 8월 23일 (목) 오후 7시  
장소: 6층 신나는 방

### 등대협의회

일시: 8월 27일 (월) 오후 2시  
장소: 광명YMCA

### 촛불 수련회

일시: 9월 29일(토)~9월 30일(일)  
장소: 양평 거래시마을

### 정기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5층 나눔방

### 월례회

일시: 8월 30일(목) 오전 10시  
장소: 5층 나눔방

### 운영위원회

일시: 8월 13일(월) 오후 2시  
장소: 5층 나눔방

### 토요나눔장터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 2시  
장소: 부천시청 잔디광장 앞 인도

### 월례회

일시: 8월 6일(월) 오후 8시  
장소: 5층 나눔방

### 한여름밤의 문화여행

일시: 8월 25일(토)  
장소: 대학로

### 정기모임

일시: 9월 4일(화)  
장소: 5층 나눔방

### 월례회

일시: 9월 18일(화)  
장소: 5층 나눔방

### 평생학습축제참여

일시: 9월 14일(금)~15일(토)  
장소: 석전공원

### 樂樂

### 기타·우쿠렐레 강습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 오후 7시  
장소: 5층 나눔방 / 6층 신나는 방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

장소: 6층 신나는방



# • 주요일정 •



## 정기이사회

일시 : 9월 11일(화) 오후 7시30분  
장소 : 6층 신나는방

## 청소년사업위원회

일시 : 8월 22일(수) 오후 7시  
장소 : 5층 나눔방

## 직원수련회

일시 : 8월 25일(토) / 장소 : Y회관

## 북중권 접경지역 평화순례

일시 : 8월 27일(월)~9월 1일(토) 5박6일  
장소 : 대련, 단동, 백두산, 연길, 훈춘 등

## 생활 신앙강좌

### <에니어그램으로 본 성서이야기>

일시 : 9월 18일(화), 10월 30일(화) 오후 7시  
장소 : 6층 신나는방  
강사 : 이은재 목사

## 아기스포츠탄

### 2019년도 신입단원 모집

추천서 배부 : 8월 31일(금)부터 ~  
상담기간 : 9월 17일(월)~ 10월 19일(금)

### 7세 지리산 등반

일시 : 9월 14(금)~15일(토)  
장소 : 지리산 노고단

## 여린이

### 역사기행

일시 : 9월 8일(토) 장소 : 해미읍성

### 자연기행단

일시 : 9월 15일(토) 장소 : 자기용산가족공원

## 제1기 부천시민평화대학 : 회복적정의 워크숍 3단계

일시 : 9월 3일~10월 2일  
매주 월,화 오전 10시~오후 1시(총 8회)  
장소 : 6층 신나는방  
강사 : 정진 (회복적생활교육연구소 소장)

## 시민사업위원회

일시 : 9월 6일(목) 오후 7시 / 장소 : 5층 나눔방

## 체육교육팀

### 수영장 재등록

일시 : 8월 18일(토)~23일(목)

### 수영장 9월 신규접수

일시 : 8월 27일(월) 오전 8시10분

### 수영장 강습반 응급처치교육

일시 : 8월 30일(목)~31일(금) 오후 3, 4, 5, 6시

## 청소년상담실

### 청소년 집단상담

일시 : 8월 22일(수), 23일(목), 29(수), 30(목)  
장소 : 상동고, 상동중

### 청소년 또래상담교육

일시 : 8월 23(목), 30일(목)  
장소 : 상일중, 성곡중

##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 송내동마을축제'어울나래'

일시 : 9월 1일(토) 오후 2시 ~오후 5시  
장소 : 송내어울마당 잔디무대

### 찾아가는 마을놀이터

일시 : 8월 16일(목) 오후3시~오후5시  
(산골어린이 공원)  
8월 24일(금) 오후7시~오후9시  
(송내 어울마당 잔디무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평화의 바람

#With YMCA

